



훈신의 스매싱

'금빛 왕크' 이용대(뒤쪽)가 8일 오후 화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열린 배드민턴 단체전 중국과의 결승에서 고성현과 제 3경기 남자 복식 대표로 나서 스매싱을 하고 있다.

/특별취재단=최현배기자 choi@

# 이용대 '금빛 스매싱' 시작

## 단체 결승서 중국 3대 0 꺾고 우승



배드민턴

한국 배드민턴 '드림팀'의 우승 행진이 시작됐다. 이용대(삼성전기)를 앞세운 한국 배드민턴 대표팀이 8일 화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열린 배드민턴 단체전 결승에서 중국을 매치 스코어 3-0으로 제압하고 금메달 행진에 시동을 걸었다. 준결승에서 말레이시아를 매치 스코어 3-0으로 누르고 결승에 진출한 한국은 결승에서도 3-0의 깔끔한 승리를 만들었다. 이번 우승으

로 한국은 지난 2013년 카잔 대회에 이어 배드민턴 단체전 2연패에 성공했다. 또 안방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 금메달 싸움이 될 첫 단추를 잘 꿴다. 중국을 상대로 한 우승 도전에서 김기정 과 신승찬(이상 삼성전기)이 혼합 복식 대 표로 가장 먼저 코트에 섰다. 김-신 조는 정원-오우 동니 조를 맞아 15-21로 첫 세 트를 내줬지만 이후 두 세트(21-17 21-7)를 내리 가져가면서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다.

두 번째 경기는 남자 복식으로 진행됐 다. 남자 복식 대표로 나선 손완호(김천시 청) 역시 가오후안을 상대로 2-0(21-13 21-8)의 완승을 거두면서 한국은 금메달 을 향한 8부 능선을 넘었다. 그리고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 이용대가 한국 배드민턴 대표팀의 대회 첫 금메달 을 확정짓기 위해 코트에 등장했다. 고성 현(김천시청)과 호흡을 맞춘 이용대는 장 원-왕위류와의 첫 세트에서 21-19로 점전 을 벌였지만, 두 번째 세트는 21-8로 가뻛 게 마무리하면서 금메달을 확정지었다. /특별취재단=김여울기자 wool@

# 한국 남녀 품새 금5 '씩쓸이'



태권도

한국이 광주U대회 태 권도 품새 단체전과 혼 성전에서 금메달 3개를 싹쓸이하며 태권도 종 주국의 자존심을 지켜 냈다. 장세훈(24·경희대), 조정훈(21·나사렛 대), 이광현(19·한국체대)은 8일 광주 조 선대 체육관에서 열린 태권도 품새 남자 단체 결승전에서 7.52점을 얻어 1위를 차지했다. 이들은 1라운드 7.50점, 2라운드 에서 7.53점을 획득하는 등 세계 정상급 실력을 과시했다. 은메달은 7.38점을 딴 인도네시아, 공동

개인·단체·혼성전 석권  
중주국 자존심 지켜내  
동메달은 7.36점을 얻은 대만과 7.32점을 기록한 베트남이 차지했다. 여자 태권도 단체전에서는 최호서(22·한국체대), 최지은(19·경희대), 곽여원 (21·용인대)이 7.62점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여자팀은 특히 1라운드 7.50점을 받아 불안했던 것과 달리, 2라운드에서 7.74점을 기록하면서 대만(7.57점)과 이란·타키(이상 7.48점)를 여유있게 따돌렸다.

대만은 7.57점으로 은메달, 이란과 타키는 각각 7.48점으로 동메달을 획득했다. 권혁인(21·용인대), 이재희(여·22·경희대)가 짝을 이룬 남녀 혼성 단체전에서는 7.63점을 따내면서 2위인 멕시코(7.61점)를 아슬아슬하게 누르고 1위에 올랐다. 공동 3위는 7.45점을 딴 대만과 7.39점 을 얻은 베트남에게 돌아갔다. 전날 남녀 품새 개인전에서 2개의 금메 달을 딴 한국은 이로써 이번 U대회 품새 종목에 걸린 5개의 금메달을 모두 쓸어들 았다. 9일부터는 체급별 겨루기에서 금메 달 사냥에 나선다. /특별취재단=박기웅기자 pboxer@

# '野都 광주' 비가 야속해요



야구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야구 관계자들이다. 야구는 이번 2015 광 주하계유니버시아드(이하 U대회)를 통해 1995 년 대회 이후 20년 만에 다시 U대회에 모습을 보인 종목이다. 우리나라 최고의 인기 스포츠인데다 '야구의 메카'로 꼽히는 광주에서 열리는 대회라 서 야구에 대한 관심은 뜨겁다. 지난 6일 20년 만에 열린 한일전에는 6500명의 관 중이 입장해 그 인기를 과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비'가 야구의 신바람 질주에 걸 립돌이 되고 있다. 장맛비와 태풍의 영향으로 지난 7일 광 주에는 하루내내 비가 내렸다. 이날 오후 6시 무등경기장에서 시작된 한국과 프랑 스의 경기가 노게임을 되는 등 예정됐던 4 경기 중 3경기가 비로 열리지 못했다. 예비 일로 잡아 두었던 9일에 취소된 3경기를 재배치했지만 앞으로의 기상상태에 따라

우천으로 노게임 잇따라  
운동장 물빼기 작업 등  
대회 일정 맞추기 안간힘  
서는 대회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 는 상황이다. FISU(국제대학스포츠연맹)의 입장은 단호하다. 어떻게든 경기를 치러서 예정된 일정에 따라 11일 메달의 주인공들을 가 려야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경기장 사수'를 놓고 비상이 걸렸다. 8일에도 광주에는 비가 계속됐지 만 야구는 진행이 됐다. 스펀지가 비장의 무기로 등장했다. 대회 관계자들이 스펀지 까지 동원해 경기장에 고인 물을 빼는 작 업을 진행했다. 이런 노력으로 약천후 속 에서도 오전 11시 무등경기장에서 예정됐 던 멕시코와 체코의 대결이 펼쳐졌다. 결

과는 체코의 8-0, 5회 강우 콜드승. 각각 오후 5시와 6시에 시작된 프랑스와 일본 (무등야구장), 한국과 중국( 챔피언스필드)의 경기도 빗 속의 승부가 됐다. 대회 관계자는 "매일 상황을 보면서 야 구 기술위원회 회의를 통해 경기 진행에 대한 부분을 조정하고 있다. FISU 측에서 는 비가 와도 대기하고 있다가 경기를 소화 하라고 주문을 하고 있다.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순위 결정전 없이 4강, 결승만 치를 수도 있다. 아직 '추첨'이라던가 최악의 상 황은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 최대한 선수 들이 부상 없이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만 번의 준비와 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야구 종목에서는 강우와 함께 점수 차에 따른 콜드 게임도 적용된다. 예선전의 경우 5회까지 15점, 7-8회 10점차의 상황 이 되면 콜드 게임이 선언된다. 한국의 첫 경기에서도 관계자들을 긴장시켰던 것은 콜드 게임 규정이었다. /특별취재단=김여울기자 wool@

##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 햇살론대출
- ▣ 임대보증금대출
- ▣ 정부정책자금대출
- ▣ 일일상환대출

※ 근저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서양새마을금고**